

‘동북호랑이우승비’ 제막식隆重举行

— 길림성축구팀 전국 갑급리그 우승 60돐을 맞으며



풍성한 수확의 계절 10월에 길림성축구팀 전국 갑급리그 우승 기념 ‘동북호랑이우승비’가 해란강반에 세워졌다.

10월 3일 오전, 길림성축구팀 전국 갑급리그 우승 60돐을 앞두고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와 룡정해란강축구문화산업투자유한회사의 주최하에 ‘동북호랑이우승비’ 제막식이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965년 4월, 박장수, 허경수, 지운봉, 지정룡, 당봉상 등 성원으로 구성된 길림성축구팀은 박만복 감독의 인솔하에 길림성을 대표하여 전국 갑급리그에서 우승을 따내고 풍격상을 받아안으며 융합한 기세로

‘동북호랑이’의 당당한 위풍을 떨친 데서 그 이름이 중국 대지에 널리 알려졌다. 그 때로부터 축구공인들이 창조한 빛나는 영예와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의 자호감을 뽐냈이 세워주었으며 또 수십년간 두 세대를 고무격려하여 수많은 민족 축구건아들이 나타나도록 했다.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 회장 오장권은 제막식 축사에서 “비록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다행히도 오늘 마침내 공훈 비석이 성공적으로 락성되어 한편으로는 공선배님들에게 약간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서 마음이 놓이고



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 회장 오장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후대들이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 고양하여 성과를 이루고 연변축구의 진흥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싸인을 한 연변룡정축구팀 팀복과 축구공을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에 선물하고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에서는 공훈기념비 인수인계 문서를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 전달했다.

연변룡정축구팀 소속 리세빈선수는 “선배님들의 위대한 성과와 불후의 업적은 여러 세대의 사람들을 고무격려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훈련기지에 ‘동북호랑이우승비’가 세워지면서 31명의 축구공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연변의 세세대 축구인으로서 우리는 대선배님들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그들을 본보기로 고향을 위해 영광을 빛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 회장 오장권과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 총경리 량홍일이 함께 ‘동북호랑이우승비’를 제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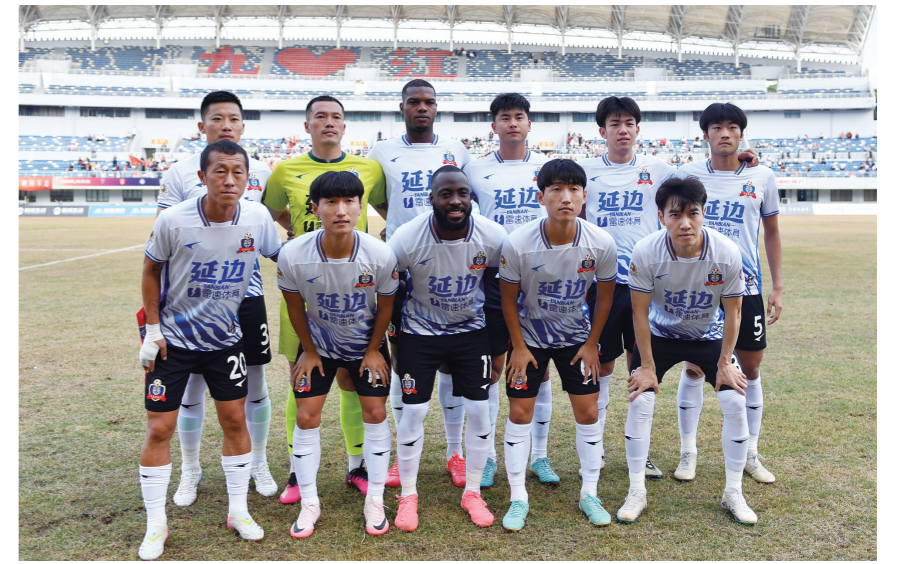
‘동북호랑이우승비’는 너비 6.6미터, 높이 3.1미터, 두께 0.7미터이며 1965년 전국갑급리그에서 우승할 때의 31명 축구공인들의 명단이 새겨져있다.

한편 이번 제막식에는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 장춘조선족녀성협회, 룡정해란강축구문화산업투자유한회사 관련 인사들과 래빈, 연변룡정축구팀 선수들과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했다.

/ 김파기자

특독 관전평

운도 실력? 원정 3점 더하며 잔류 확정인 문 ‘활짝’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다. 2024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26라운드 대강서려산전에서 원정승을 이룩한 연변팀에 천운이 따랐다.

예상으로 쉽게 승리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간신히 신승을 거두었다.

상대가 풀짜팀이어서 ‘이번엔 쉽지 않을거라’는 예상을 깨고 연변팀은 경기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전반전에 선제골을 뽑아내긴 했지만 강서려산팀의 파상공세에 맞서 막아내는 데에만 급급하다 보니 연변팀은 시종 말리는 경기를 하며 그럴듯한 공격을 펼치지 못했다.

비록 연변팀이 첫 골을 터뜨렸지만 전반전 데이터를 보면 강서려산팀은 슈팅 8회(유효 슈팅 3회)를 기록해 연변팀의 슈팅 2회(유효 슈팅 1회)를 상회했다. 위험한 공격도 상대팀이 46회를 쏟아낼 때 연변팀은 단 8회 뿐이었다.

그렇다고 후반전에 돌입해 이러한 불리한 형국을 타개할 묘책을 찾아낸 것도 아니었다. 여전히 수세에 몰리면서 중원 통제권을 잃은 연변팀은 강서팀에 슈팅을 11회 추가하게 했고 전반 경기 내내 상대는 공격 110회(위험 공격 77회)라는 기록을 썼다. 반면 연변팀의 공격은 75회였고 위험한 공격은 29회뿐이었다.

한편 경기 90분 동안 슈팅 19회(연변팀 슈팅 5회)를 쏟아낸 강서팀은

유효 슈팅이 3회에 그치면서 빈약한 공격력에 무릎을 꿇어야 했고 더불어 몇차례 문대를 강타하는 불운에 물어안았다.

이러니저러니 경기 장면으로 보나 데이터로 보나 여러모로 불리했지만 그와 관계없이 승리의 녀신이 연변팀에 손을 들어줬던 것이다. ‘운 우주의 기운’까지 더해진 운 좋은 승리를 기분 좋게 거두면서 연변팀은 잔류 확정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결과로 말하는 축구 경기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치렀다는 점에서 연변팀은 박수를 받을 만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있지만 ‘원정약체’로 평가받던 연변팀이 원정에서 또 한번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에, 소소한 원정 3점으로 잔류를 확정했다는 데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나이가 이보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며 잔류 걱정을 던 상황에서 남은 경기를 넘어 다음 시즌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모든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오는 12일에 연변팀은 또 한번 원정에서 광서평과하료와 대결한다.

지난 제 12라운드에서 홈장을 내줬던 연변팀에 설욕할 기회가 찾아왔다. 만만치 않은 상대(7위)라지만 지지 않는 축구를 하는 연변팀(9위)의 모습을 또 기대해본다.

/ 김가혜기자

연변팀, 관건적인 원정승으로 리그 잔류에 성공!

- 강서려산에 1대0 신승... 이겼다는 게 포인트

10월 6일 15시 30분,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강서성 구강시체육공원체육장에서 진행된 강서려산팀(이하 ‘강서팀’)과의 2024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26라운드 경기에서 1대0 원정승을 거두면서 갑급리그 잔류에 성공했다.



▲ 강서려산과의 경기 유일한 결승골을 터뜨리며 연변팀 승리를 이끈 왕성페

이에 앞서 5일 저녁에 진행된 강등권에 있는 팀간의 관건적인 경기에서 불산남사가 5대1로 흥룡강방성팀을 크게 이기면서 흥룡강방성을 강등의 수렁으로 끌어내렸고 무석오구가 룡정철인인 1대2 패하면서 추격을 주춤한 상태다.

이번 경기는 연변팀이 승리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라운드 앞당겨 갑급리그 잔류를 확정짓게 되는 비교적 관건적인 경기였다. 하지만 리그 잔류를 위해 최고 마력을 다하는 강서팀 역시 호락호락 넘어갈 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의 관심을 모았다.

강서팀은 19번 진준욱을 문지기라고 하고 24번 두궁봉, 36번 장준철, 14번 진운화, 5번 씨얼짜티로 수비선을, 11번 타비소, 17번 서동동, 33번 강진철, 10번 윌리리 중앙선을 구축했으며 4번 주명훈과 29번 바비오를 투톱으로 내세운 4-4-2 전형을 들고 나왔다.

이에 연변팀은 19번 동가림에게 골문을 맡기고 14번 리룡, 5번 리달, 15번 서계조, 3번 왕봉, 20번 김태연으로 수비진을 짜고 30번 왕박호, 6번 리강, 23번 왕성페, 11번 아블레다로 허리계를 만든 후 9번 로난을 원톱으로 내세운 5-4-1 철통수비 진영으로 맞섰다. 한편 경기를 앞두고 10번 이보선수가 계약을 해지하고 팀을 떠난 상황이었다.

경기에 앞서 경기장에 도착하는 연변팀 선수들을 연변축구팬들의 “승리

하자! 연변!” 응원소리가 친절하게 맞이하여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수백명의 연변축구팬들이 현장을 찾은 가운데 진행된 경기는 상호 탐색전이 필요없었다. 시작부터 공방 질주가 빠른 경기에 돌입한 두 팀은 경기장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상대를 압박하였다.

8분경 강서팀이 프리킥 기회를 리용하여 첫 슈팅을 날렸고 동가림이 거둬들였다. 연변팀은 10분경 한차례 반격 기회를 리용하여 로난이 발뒤축으로 금지구역 안으로 파고드는 왕성페에게 공을 패스했고 후자는 공을 정확하게 상대의 골문 안에 차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갔다.

강서팀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공격을 조직하였는데 13분경에 성공시킨 슈팅이 연변팀의 골문을 맞히기도 했다. 14분경 첫 옐로카드가 강서팀 장준철선수에게 주어졌다. 15분경 강서팀의 바비오가 1대1 상황에서 날린 슈팅이 동가림이 몸으로 쳐냈다. 동가림은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간단한 치료를 받고 경기를 견지했다.

강서팀이 전면공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조급한 정서로 조직하는 공격은 연변팀의 수비그물에 되풀이되거나 기를 반복했고 일정한 위협을 조성하기도 했다. 연변팀은 진세를 뒤로 당겨서 차분하게 대처했고 27분경에는 한차례의 반격 기회에 상대의 문전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35분경 2번 현지건으로 왕박호를 교체 출전시킨 연변팀은 승리에 대한 견결한 의지를 내비쳤다. 선제골을 내준 후 강서팀은 25차의 밀물공세로 두차례나 골문을 맞는 등 경기 주도권을 갖았지만 연변팀의 골문은 시종 열리지 않았다. 43분경에 나온 바비오의 강슛도 동가림이 쳐냈다.

3분간의 경기 추가 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동가림이 타비소의 근거리 슈팅을 막아내면서 연변팀은 1대0의 우세로 후반전에 진입하게 되었다.

전반전은 강서팀이 72.24%의 공점 율을 슈팅 8회로 연변팀보다 앞섰다.

후반전에 돌입해 이기형 감독은 12번 리아남으로 부상당한 동가림을 교체하여 출전시켰다. 49분경 로난이

한풀 더 수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고 그 공은 강서팀의 슈팅으로 이어졌다.

경기 절주는 강서팀이 앞아갔다. 52분경 2번 현지건이 한차례의 반격 기회에 금지구역 안으로 패스했지만 상대 문지기에게 의해 거둬들여졌다. 강서팀 로망들의 체력 소모가 커가면서 경기 절주가 약간 느슨해지기 시작하였다. 60분경 ‘유리몸’으로 불리는 아블레다가 또 부상을 호소했고 62분경에 장오개로 교체되었다.

70분이 넘으면서 강서팀의 체력 소모가 뚜렷해지고 연변팀의 반격 기회가 점점 많아지면서 경기는 주고받기 대치상태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열세에 처한 강서팀은 그렇다 할 공격을 조직하기 힘들었다.

77분경, 6번 리강이 강한 신체 접촉으로 경기장 밖에 나와 잠깐 치료를 받았고 80분경에는 허문광으로 왕성페를 교체 출전시켰다.

83분경, 로난이 자기가 직접 쟁취한 한차례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서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85분경 강서팀은 문전의 혼전을 틈타 코너킥 기회를 얻었으나 연변팀의 수비에 막혔다.

6분간의 경기 추가 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연변팀 선수들은 끈질긴 수비와 적극적인 공격 조직으로 상대에 압력을 가했다. 93분경 절호의 기회가 강서팀에 차려졌지만 빈 골대를 향한 슈팅은 하늘로 날아올랐다.

결국 연변팀은 원정에서 1대0 관건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4라운드 앞당겨 갑급리그 잔류에 성공했다.

을급리그로 강등되는 두장의 명맥은 강서려산, 무석오구, 청도홍사, 흥룡강방성, 불산남사 등 팀들 사이에서 산생된다.

연변팀은 오는 12일 19시 30분에 역시 원정에서 광서평과하료팀과 제 27라운드 경기를 펼치게 된다.

/ 김태국 김파 기자

2024년 ‘금강’컵

연변 청소년축구 초청경기 룡정서 결속

10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을 경축하면서 진행된 2024년 ‘금강’컵 연변조선족자치주 청소년축구 초청경기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초청경기는 26개 축구구락부에서 온 68개 팀이 갑조(2013-2014년령대), 교정조, 을조(2017-2018년령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3일간의 경기를 통해 13-14년령대(엘리트조)에서는 룡정체육학교팀(A팀)이 1위를, 아리랑청소년훈련팀과 동북호랑이청소년훈련팀이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13-14년령대(교정조)에서는 훈춘청천 A팀이 1위를, 심양오계성팀과 동성청소년훈련팀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15-16년령대(엘리트조)에서는 동성청소년훈련팀이 1위를, 아리랑 청소년훈련팀과 룡정체육학교팀(남자축구)이 각각 2, 3위를, 15-16년령대(교정조)에서는 아리랑 A팀이 1위를, 광흥청소년훈련팀과 꿈청소년훈련팀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17-18년령대에서는 심양오계성팀이 1위를, 화랑청소년훈련팀과 미니소년청소년훈련팀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최우수지도자상에 각 연령조 1위팀 지도들이 상을 획득했다.

이번 초청경기는 주체육국과 주부녀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주축구협회, 주청소년축구연맹에서 주관, 룡정시체육국, 룡정해란강축구문화산업단지, 연변금강식품유한회사에서 협찬



했다. 한편 룡정체육학교, 아리랑 청소년훈련팀, 김성정소년훈련팀, 장춘청성청소년훈련팀, 동북호랑이청소년훈련팀, 연변룡정청소년훈련팀, 룡정성당 청소년훈련팀, 화랑청소년훈련팀, 훈춘청천청소년훈련팀, 미니소년 축구학원훈련팀, 심양오계성청소년훈련팀, 장춘특별이 청소년훈련팀, 화룡체육학교, 룡정소년훈련팀, 김성정소년훈련팀, DRAGON 청소년훈련팀, 범들이 청소년훈련팀, 금대정소년훈련팀, 연변일호청소년훈련팀, 목단강민족련팀, 연변꿈나무청소년훈련팀, 최지도청소년훈련팀, 연변경도 청소년훈련팀, 양광청소년팀 등 26개 축구구락부에서 온 68개 팀의 1,000여명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했다.

/ 김태국 김파 기자